대한경락경혈학회지 Vol.22, No.2, pp.1~8, 2005
The Korean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제 4차 WHO 경혈 위치 국제표준화 회의 보고

임윤경[1] · 김용석[2] · 구성태[3] · 손인철[4] · 박히준[5] · 이혜정[6] · 이지영[1] · 강성길[2]

[1]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2]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3]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
[4]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5]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6]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침구경락학교실

Report on the 4th WHO Informal Consultation 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Acupuncture Points Locations

Yun-Kyoung Yim[1] · Yong-Suk Kim[2] · Sung-Tae Koo[3] · In-Chul Sohn[4] · Hi-Joon Park[5] · Hye-Jung Lee[6] · Ji-Young Yi[1] · Sung-Keel Kang[2]

[1]*Dep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 ;*
[2]*Dep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3]*Dept. of Medical Research,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
[4]*Dep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
[5]*Dep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
[6]*Oriental Medic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East-West Medical Science, Kyunghee Univ.*

Abstract

Objective : To inform of the 4th WHO informal consultation meeting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acupuncture points locations, held in Daejeon, Korea, on April 23~26, 2005.

Results and Conclusions: 12 experts from Korea, China and Japan discussed the locations of 18 controversial points that were not agreed at the previous meeting, and 16 non-controversial points that all 3 nations agreed on the locations but still needed more discussion for their expressions, as well as other non-controversial points that were agreed on both the locations and the expressions but were suggested by Chinese party to be discussed again. Also, the guidelines for English translation of the standard acupuncture points loc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the standard acupuncture points charts, diagrams, and dolls were discussed in this meeting. Through this meeting, the locations of ST30, SP11, SP12, TE18, GB9, GB10, LR4, LR5, LR6, BL6, BL7, BL9, GB19 were agreed, but it was suggested that more research would be needed for the locations of LI20, GV26, PC8, PC9, LR7, GB30, LR12, and the expressions of ST36, ST38, ST39, BL1. Due to the time limitation, 16 acupuncture points out of those Chinese party suggested to have more discussion about were not discussed at this meeting and remained to be discussed at the next meeting.

Key words : International Standard of Acupuncture points locations, WHO informal consultation, Korea, Daejeon meeting

· 교신저자 : 강성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침구과, Tel. 02-958-9193,
E-mail : kskacu@hanmail.net
· 접수 : 2005/05/25 · 수정 : 2005/06/20 · 채택 : 2005/06/21

Ⅰ. 서 론

2005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한의학연구소에서 제 4차 WHO 국제 표준 경혈위치 개발을 위한 비공식 회의(WHO Informal Consultation Meeting on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Acupuncture Points Locations)가 개최되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침구경혈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1차 마닐라 회의(2003년 10월)와 2차 북경회의(2004년 3월)[1] 그리고 3차 교토 회의(2005년 10월)[2]에 이어, 국제 표준 혈위의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18개의 경혈(controversial points)과, 위치는 일치하지만 표현방법이 상이한 16개의 경혈, 그리고 기존의 회의를 통하여 한·중·일 삼국이 합의점에 도달하였으나 표현에 있어 추가로 이의가 제기된 경혈들이 논의 되었다. 또한, 표준 經穴圖와 銅人, 표준 穴位 표기의 영문 번역 방법이 논의되었고, 침구경혈 정위 국제 학회 설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이에 본 회의의 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일시 및 장소

1) 일시: 2005년 4월 25일-27일
2) 장소: 한국, 대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 참가자

1) Temporary advisors

한국 : 강성길 교수, 김용석 교수, 이혜정 교수, 구성태 박사
중국 : Wang Xuetai 교수, Hwang Longxiang 교수, Wu Zhongchao 교수, Jin Zhigao 교수
일본 : Katai Shuichii 교수, Shinohara Shoji 교수, Dr. Kobayashi Kenji, Dr. Urayama Hisatsugu.

2) Observers

한국 : 박히준 교수, 이상훈 교수, 임윤경 교수, 송호섭 교수
중국 : Mr. Tan Yuansheng
일본 : Mr. Shunji Sakaguchi, Mr. Yasuhiro Kawahara, Mr. Toshimitsu Katori, Mr. Munenori Saitoh

3) Staff

한-중 통역 : 김군
한-일 통역 : 지현수
기록 : Shinohara Shoji 교수, 이지영

4) WHO

최승훈 WHO 서태평양지구 전통의학 담당관

3. 회의 진행

의장은 중국의 Wang Xuetai 교수가 맡았고, 부의장은 한국의 강성길 교수가 맡았다. 한국어를 공식어로 하여 한-중, 한-일 통역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날인 4월 25일에는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19개의 경혈(controversial points)에 대하여 토의하였고, 둘째 날인 4월 26일과 마지막 날인 4월 27일 오전에는, 위치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었으나 표현방법에 논란이 있는 16개의 경혈과, 이전에 합의를 이루었으나 중국측에서 다시 이의가 제기된 혈들에 대해 토의하였다. 27일 오후에는 국제 혈위 표준안의 영문 번역 기준과, 표준 경혈도, 표준 침구동인 제

작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4. 회의 내용

4.1.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혈(18혈)

3차례의 consultation meeting을 통해 대부분의 혈위에 대하여 한·중·일 3국이 합의를 이루었으나, 肘髎, 髀關, 勞宮, 中衝, 瘈脈, 曲泉, 長强, 水溝 등 8개 穴에 대해서는 지난 3차 회의까지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2005년 1월 북경에서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肘髎, 髀關, 曲泉, 長强의 위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勞宮, 中衝, 瘈脈, 水溝의 4穴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류되었다. 그 외에, 迎香, 氣衝, 箕門, 衝門, 天衝, 浮白, 中封, 蠡溝, 中都, 膝關, 承光, 通天, 玉枕, 腦空 등 14개 혈위에 대한 이견이 다시 제기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우선 이들 18개의 논란이 있는 경혈의 위치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1) 迎香(LI20)

한국과 일본은 '鼻脣溝에서 鼻翼 下緣과 수평한 부위'에, 중국은 '鼻翼 外緣의 중점'에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迎香은 禾髎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禾髎는 水溝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므로, 水溝의 위치를 논의한 후 迎香의 위치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후의 토론에서 水溝에 대한 결정이 보류됨에 따라 迎香 역시 보류되었다.

2) 水溝(GV26)

한국과 일본은 水溝를 '人中溝의 중앙'으로, 중국은 千金要方의 '人中近鼻柱'와 鍼灸大成의 '在鼻柱下丘中央', 그리고 神應經과 玉龍經 등의 문헌을 근거로 하여, 水溝를 '人中溝의 上 1/3과 下 2/3의 交點'으로 주장하였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이 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보류되었다.

3) 氣衝(ST30)

氣衝은 動脈搏動處의 의미가 중요한데, '恥骨結合 上緣의 중점에서 兩方 2寸'에 氣衝을 정할 경우 動脈搏動處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原案에서 '恥骨結合上緣'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氣衝의 위치는 "前正中線 兩方 2寸과 鼠蹊靭帶 上緣이 만나는 動脈搏動處"로 결정되었다.

4) 箕門(SP11)

古典에 언급된 '魚腹', '越筋間', '動脈應手處' 등이 현대 해부학적으로 어느 부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다. 중국은 이 부위가 '縫工筋과 大腿內轉筋 사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한국은 '縫工筋과 大腿直筋 사이'라고 주장하였다. 토의결과 중국측 의견을 따르기로 하였다.

5) 衝門(SP12)

氣衝과 동일한 맥락으로, 해부학적 표지를 우선으로 하여, 정중선으로부터의 촌수 표기를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衝門의 위치는 "鼠蹊靭帶 上緣, 外腸骨動脈 外側"으로 결정되었다.

6) 勞宮(PC8)

한국측에서는, 勞宮은 손바닥의 가운데를 가리키며, 손의 중심은 3지로, 3,4지 사이가 고대문헌의 '動脈 搏動處'에도 부합하므로, 3,4指 사이에 勞宮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일본은 十二經發揮나 鍼灸大成 등의 고전에서 '內'라는 단어는 橈側을 의미하며, 따라서 勞宮에 대한 고전의 '掌中中指本節內間'은 2, 3指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나 本 穴位는 합의

점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7) 中衝(PC9)

한국과 중국은 中衝을 '중지첨단'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에서는, 일반적으로 井穴들은 손가락 끝이 아닌 조갑근 측부에서 취하며, 경락유주상으로 볼 때 勞宮이 2,3지 사이에 위치한다면 中衝은 중지 요측 爪甲根部에 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이 穴 역시 勞宮과 마찬가지로 穴位의 결정이 보류되었다.

8) 瘈脈(TE18)

한국과 중국은 '유양돌기 중앙'으로, 일본은 '耳介 中央의 후연'으로 주장하였다. '耳介 中央'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과 중국의 의견을 따르기로 일본측이 동의하였다. 따라서 본 穴의 위치는 '유양돌기 중앙, 翳風과 角孫 사이를 3등분하여 위쪽 1/3과 아래쪽 2/3의 교점이 되는 곳'으로 삼국이 합의하였다.

9) 天衝(GB9)

'GB8(率谷) 후 0.5寸'으로 합의하였다.

10) 浮白(GB10)

'유양돌기 後上方, 天衝과 完骨을 이은 곡선의 위1/3과 아래2/3의 교점'으로 결정되었으며, '耳尖後方 入髮際1寸'의 표현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11) 中封(LR4)

'前脛骨筋 腱의 내측연 陷凹處로, 足內踝尖과 수평 높이'라고 표기하는 데에 삼국이 동의하였으나, 일본측에서, '足內踝 前 1寸'이라는 촌수표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부학적 위치가 분명하므로 촌수 표기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 蠡溝(LR5)

본 穴이 脛骨의 내측면 중앙에 있는지, 내측 모서리(내측면 후연)에 있는지가 논점이 되었다. 토의 결과, "脛骨 內側面 中央, 內踝尖上 5寸"으로 결정되었다.

13) 中都(LR6)

蠡溝와 같은 맥락으로, "脛骨內側面 中央, 內踝尖上 7寸"으로 결정되었다.

14) 膝關(LR7)

膝關이'陰陵泉 後 1寸'이라는 데에는 삼국이 동의하였으나, 한국과 중국은 陰陵泉과 수평으로 後方에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일본은 陰陵泉에서 後上方으로 陰陵泉과 曲泉 사이에 취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의결과 의견의 합일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15) 承光(BL6)

한국과 중국은 '五處 직상 1.5寸'을, 일본은 '五處 직상 2寸'을 주장하였다. 토의 결과, 한·중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되었다.

16) 通天(BL7)

承光과 같은 맥락으로, '전발제 직상 4촌에서 양방 1.5촌'으로 결정되었다.

17) 玉枕(BL9)

해부학적 위치가 분명한 穴位라는 점에서, 일본측이 제안한 '後髮際上 3寸'의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본 經穴의 위치는 原案대로 '後頭部, 後頭隆起 上緣, 後髮際 중점으로부터 1.3寸 떨어진 곳'으로 합의하였다.

18) 腦空(GB19)

일본측에서는 腦空의 혈위 표현에 '前髮際 후방 5.5寸'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의결과 이러한 표현을 추가하는 것은 前~後髮際 사이의 거리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일본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2. 위치에 대하여 삼국이 동의하였으나 표현방법에 이견이 있는 경혈(16혈)

1) 天府(LU3)

지난 교토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腋窩 前橫文 下 3寸의 상완이두근 橈側緣으로, 일본은 상완이두근의 長頭와 短頭 사이로 주장하여, 토의결과 한국과 중국의 안을 채택하고 일본안은 note로서 첨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안을 따르기로 합의하였다.

2) 俠白(LU4)

天府와 같은 관점에서, 역시 한국과 중국의 案으로 합의되었다.

3) 尺澤(LU5)

草案의 내용에 따라 '肘橫文上, 上腕二頭筋腱 橈側 陷凹處'로 합의되었다.

4) 地倉(ST4)

'口角 方 0.4寸'의 해부학적 표현에 대해 논의되었다. 얼굴근육의 특성상 적당한 해부학적 표지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0.4寸으로 표기하는 데 삼국이 동의하였다.

5) 溫溜(LI7)

溫流의 위치 표현에 있어 근육을 표기할 경우 임상상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草案에 첨부된 註에서 근육을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6) 湧泉(KI1)

草案의 注에 '2趾와 3趾의 연결부에서 발뒤꿈치까지 거리의 앞1/3과 뒤2/3의 교점'이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草案에서 이 注를 삭제하고 '발을 구부렸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라는 내용만 기재하기로 하였다.

7) 頷厭(GB4), 懸顱(GB5),

한국과 중국은 頭維와 曲鬢을 이은 곡선상에서, 일본은 이 두 穴을 이은 직선상에서 本 穴들을 取한다고 주장하였다. 토의 결과, 곡선상에서 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8) 目窓(GB16)

한국측에서 草案의 '前髮際上 1.5寸'이라는 표현 외에 '頭臨泣 直上 1寸'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이 촌수를 두 가지로 표현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여 原案대로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9) 環跳(GB30)

한국과 중국은 '大轉子 最高點과 薦骨裂孔을 연결한 선의 바깥쪽 1/3'로, 일본은 '大轉子 最高點의 앞, 고관절을 굴곡시킬 때 나타나는 橫紋의 끝'으로 주장하였다. 이 혈위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보류되어, 다시 controversial points로 분류되었다.

10) 風市(GB31)

이전 회의(교토회의)에서 風市穴의 위치를 실측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삼국에서 각각 슬와횡문 외측단에서 風市(똑바로 서 있을 때 중지 끝이 닿는 부분)까지의 길이를 실측하였다. 중국에서의 실측결과, 슬와횡문에서 風市까지는 성별

에 따라 남자 11寸, 여자 10寸, 평균 10.5寸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骨度分寸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측정하였다. 한국은 10寸, 일본은 9(8.6)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토의결과, 骨度分寸은 인종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고대의 체형과 현재의 체형이 다르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촌수 표현은 삭제하기로 삼국이 동의하였다.

11) 中瀆(GB32)

草案에서 '風市 直下 2寸'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12) 陰包(LR9)

'股內側, 슬개골 기저부에서 위로 4촌, 薄筋과 縫工筋 사이'로 합의하였다.

13) 足五里(LR10)

草案에서 근육에 대한 설명은 삭제하고 '동맥박동처'라는 표현은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14) 陰廉(LR11)

足五里와 같은 맥락으로, 草案에서 근육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였다.

15) 急脈(LR12)

本 穴位는 지난 회의에서 '曲骨 外傍 2.5寸, 동맥박동처'로 합의되었으나, '서혜인대의 上緣인지 下緣인지'가 논점이 되었다. 중국은 '서혜인대의 上緣'을, 한국은 '서혜인대의 下緣'를 주장하였고, 일본은 한국측 의견에 동의하였다. 매우 오랜 시간 열띤 토론을 하였으나 합일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이 穴도 controversial points로 다시 분류되었다. 또한 急脈과 위치상 연관되는 氣衝과 衝門도 다음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다.

4.3. 이미 삼국이 합의하였으나 표현방법에 대하여 중국측이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경혈(24혈)

시간 관계상 24혈 중 8개 경혈만을 토의하고 나머지 경혈은 5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1) 肘髎

上腕骨을 기준으로 한 혈위 표현이 이미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일본측이 제시한 근육 표현은 삭제하기로 결정되었다.

2) 足三里

지난 북경회의에서, 부위 표현은 해부학적으로, 취혈법은 실용적인 표현으로 하자는 원칙에 의하여, 足三里의 가로기준선은 '슬개 인대 외측 함요처에서 아래로 3촌', 세로기준선은 '脛骨粗面과 腓骨小頭의 중점에서 解谿까지 前脛骨筋의 筋腹을 따라 연결한 선'으로 정하고, 취혈법에 '脛骨前緣에서 외측으로 1橫指(中指)'를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에서 자국내 실측결과, '脛骨粗面과 腓骨小頭의 중점에서 解谿까지 前脛骨筋의 筋腹을 따라 연결한 선'이 '脛骨前緣 외측 1橫指'보다 외측에 위치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은 '脛骨前緣 외측 1橫指(中指)'를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고, 한국은 '1橫指'의 표현보다 해부학적 표현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오랜 시간 토론하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보류되었다.

3) 上巨虛

草案에 '前脛骨筋'이라는 해부학적 표현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4) 條口, 下巨虛

足三里와 같은 맥락으로 이 혈들 역시 보류되었다. 특히 한국측에서는, 足三里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前脛骨筋의 폭이 좁아지므로, 중국측이 주장하는 '1橫指寸'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5) 解谿

草案의 '足背와 小腿가 接하는 橫紋의 중앙 함요부'를 '足背部 前面 중앙 함요부'로 수정하였다.

6) 衝陽

지난 북경회의에서 衝陽을 2,3趾間으로 정하고, 足背動脈은 1,2趾間을 지나므로 혈위 표현에서 足背動脈을 삭제하기로 하였으나, 중국측에서, 衝陽은 '動脈應手處'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衝陽을 '2趾 중족골 기저부와 楔狀骨의 關節部, 動脈應手處'로 표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삼국이 동의하였다.

7) 睛明

지난 교토회의에서 睛明을 '目內眥의 안쪽, 眼窩의 內緣'으로 定하고 '內1分'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중국측에서 다시 '目內眥 '稍上(약간 위)'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혈은 시간관계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논의를 중단하였다.

그 외에, 委陽, 築賓, 四瀆, 天髎, 天牖, 曲鬢, 肩井, 輒筋, 五椎, 太衝, 璇璣, 聽宮, 消濼, 臑會, 京門, 維道 등 16개 경혈도 시간 관계상 본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4.4. 표준 穴位의 영문 번역 방법

표준 穴位의 영문 번역에 대한 내용은 한국측에서 발표하였다. 본 회의에서 결정된 穴位 표준안을 국제 해부학회에서 정한 국제표준 해부용어를 사용하여 번역하기로 하였다.

혈위 설명은, 먼저 부위를 설명하고 그 다음 세로축과 가로축을 표기하여, 되도록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하였다.

취혈자세 및 방향에 대한 설명도 역시 해부학 용어를 따르기로 하고, 赤白肉際 등 해부학 용어가 제시되지 않은 동양적 표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용어를 만들기로 하였다.

표준혈위의 영문번역은 영문 해부학 용어를 기준으로 하여 어학 능력과 經穴에 대한 지식을 두루 갖춘 번역가의 번역 및 영어권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5. 표준 經穴圖, 침구 銅人 제작

이 부분 역시 한국측에서 발표하였다.

1) 표준 經穴圖

우선 지금까지의 經穴圖는 사실적이지 못하고, 다른 穴位들과의 비교가 어려우며, 經穴 주위의 해부학적 표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용적이지 못했다.

이번에 제작될 표준 經穴圖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하되, 머리 위 부분, 어깨 위 부분, 발바닥, 팔 안쪽, 입 안, 회음부 등 해부학적 자세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삽화를 삽입하고, 한 도면에 anatomical landmark와 經穴을 같이 표시하기로 하였다.

經穴圖는 해부학적 위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동양적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표준 銅人

銅人은 각 연령과 성별에 따라 인체 표면의

질감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볍고 단단한 소재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동양 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춘 입체적 銅人 소프트웨어 제작도 제안하였다.

4.6. 차후 회의 계획

차기(5차) WHO informal meeting은 2005년 9월 중 일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5차 회의 이전에 북경에서 working group meeting을 갖기로 하였다.

Ⅲ. 결 론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controversial points와, 위치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표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non-controversial points, 그리고 기존에 합의를 이루었으나 다시 이의가 제기된 혈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또한 표준 穴位의 영문 번역 원칙 및 표준 經穴圖와 銅人 제작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 졌다.

토의결과,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던 경혈 중 氣衝, 箕門, 衝門, 瘈脈, 天衝, 浮白, 中封, 蠡溝, 中都, 承光, 通天, 玉枕, 腦空 등의 위치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었으나, 迎香, 水溝, 勞宮, 中衝, 膝關 등의 위치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보류되었다. 또한 穴의 위치는 합의되었으나 穴位의 표현에 대해 논란이 있던 경혈들 중 環跳와 急脈은 穴의 위치에 대한 이견이 다시 제기되어 controvercial points로 재분류되었다.

그 외 穴位의 표현에 대해 논란이 있던 많은 경혈들에 대하여 삼국이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루어 냈으나, 絛口, 下巨虛, 睛明 등의 혈위 표현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결정이 보류되었으며, 시간이 부족하여 본 회의에서 계획했던 委陽, 築賓, 四瀆, 消濼, 腦會, 天髎, 天牖, 曲鬢, 肩井, 輒筋, 五樞, 太衝, 璇璣, 聽宮, 京門, 維道 等 穴位들을 다 논의하지 못한 채 폐회되었다.

앞으로 일본에서 있을 5차 회의에서는 논란이 있는 모든 경혈에 대한 삼국의 의견이 조율되어 국제 경혈 위치 표준안이 조속히 완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김용석, 강성길, 박히준, 이혜정. 2차 WHO 경혈위치 국제표준화회의 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4 ; 21(2) : 193-5.
2. 임윤경, 강성길, 김용석, 손인철, 이혜정. 제3차 WHO 경혈위치 국제표준화 회의 보고.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5 ; 22(1) : 1-5.